

베스트셀러로서의 돈키호테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2016***** 이은영

1. 들어가며

1605년에 발표된 이 책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손으로 꼽히는 베스트셀러이자 연극 등의 예술 작품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변용되며 아주 유명한 고전 소설로 소개된다. 서구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수식어와 상반되게 그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풍차를 거대 거인이라 생각하고 무모하게 돌진하는 가하면 이발사의 다 낡은 세숫대야를 요술투구라 하질 않나, 괜히 다른 이들의 일에 관여했다가 흠씬 몰매를 맞기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설이 왜 그렇게도 명성을 얻었는지, 그저 한 미치광이의 기상천외한 행보들뿐인데, 일련의 그러한 내용 속의 무엇이 읽고 있는 독자를 열광하게 하는지 의문점을 갖게 했다.

실제 나에게 있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위에서 말한 대단한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대학에 와서야 처음 접하게 된 책이었다. 일전에 워낙 잘 알려진 탓에 책의 제목과 등장인물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서구 최초의 근대적 소설이니,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명작이니 하는 말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선뜻 읽지는 못했었다. 굉장히 몸집이 거대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무언가를 읽는 기분에 시작한 이 책은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이 책을 손에 꼽을만한 명작이라 말하는지가 그 의문점의 원인이었다.

이에 돈키호테의 비이상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그 이유인지, 아니면 소설 속 다양한 인물만큼이나 다양한 사연들의 내용이 책의 유명세를 이끈 주역인지 다양한 관점과 모습 속에서 베스트셀러로서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2. 돈키호테의 욕망 -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에서¹

소설 속 우리의 주인공 돈키호테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황금의 시대회복을 주장하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 소설 속 골 지방의 기사 아마디스를 자주 언급하곤 한다. 황금시대의 도래라는 이유로 무모한 일들을 벌이는데 이러한 돈키호테의 욕망적인 모습을 예로 들며 설명한 이론이 있다.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이자 작년에 작고한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이 그것이다.

나에게 있어 이 이론은 완전히 낯선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고3 입시 준비를 하며 국어 교재에서 일전에 만나본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이 이론을 설명하며 돈키호테의 내용을 그 예로 들었다. 그만큼 이 이론은 돈키호테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둘 사이에 상당히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갖진 듯하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은 욕망하는 그 자체의 '대상'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 욕망한다는 것이다. 욕망은 결핍으로부터 발전되는 것인데 그의 이론에 의하면 자신이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도 모른 채 결핍을 채워줄 실질적인 대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나 사이에 있는 중개자의 모습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를 돈키호테에 접목하면 돈키호테가 황금의 시대라 말하며 쫓는 것은 단순히 대상에 그치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 아마디스는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의 중개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돈키호테의 황금의 시대 추구는 기사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인 아마디스의 때문이다. 그러한 이론으로 다시 돈키호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행동에서의 기준은 아마디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돈키호테가 무심코 자신의 욕망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꿈이라 생각한 황금시대의 도래는 사실 자신이 닮고 싶었던 소설 속 주인공 아마디스가 욕망하던 것이었다. 이는 비단 방랑 기사가 되고 싶어 한 끼안나 영감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스스로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가 욕망하던 것을 따라 하는 것뿐이고 결국 나의 욕망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욕망임을 우린 이미 알고 있다. 하나의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자기 만족감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이를 채우고자 명품 가방을 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¹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 한길사, (2001)

부족한 자기만족을 채우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내가 이 가방을 사면 나의 궁극적인 대상인 만족이 채워졌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론 속의 돈키호테 모습과 같이 대상 그 자체를 쫓음이 아니었고, 만족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구매 됐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다. 돈키호테의 욕망하는 모습과 이와 결부된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 가리고 숨기었던 내 욕망의 원인을 다시금 열어 볼 수 있었다. 다들 어린 시절 갖고 싶었던 장난감 등이 내가 정말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고 보다는 내가 비교를 하며 질투하던 혹은 나와 가장 가까이 어울리던 어떤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기에 질투의 마음에서 혹은 관심의 마음에서 사달라고 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단순히 어린 생각이라 치부하며 넘기곤 했는데, 몸과 머리가 큰 지금에도 그러한 마음이 전제된 욕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욕망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부끄러운 것을 이미 알면서 차마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가장 원초적이고 어찌면 부끄러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작가는 돈키호테의 욕망을 통해 우리 눈 앞에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3. 돈키호테의 광기에 대한 변명 - 푸코의 광기의 역사²

지금까지의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광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마치 헛것이라도 보이는 것 마냥 행동하며 이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놀라움을 뒤로 하고 무작정 달려드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늘 생각해온 광인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를 두고 대체로 독자들은 돈키호테의 광기라 말하지만, 이 책의 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의 파격적인 행보들을 다시 자세히 보라는 듯 계속해서 보여주기만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나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단순히 광인의 모습이라 정의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변명으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미친 것인가?’

²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나남출판, (2003)

하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저 한 문장의 질문이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진정으로 ‘미침’을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 주장 속에서 우선, 에피스테메 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는 각각의 상이한 시대별 인식의 틀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에피스테메 즉, 인식의 틀은 시대마다 그 범위가 상이했기에 똑같은 모습이라도 에피스테메가 다른 시대마다 그 평가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 귀신을 보고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 가정했을 때, 고대 그리스에선 그들을 예언자, 그들이 믿는 신의 대리인이라며 존경했던 반면 중세시대엔 마녀 등 정신이상자로 판별해 잔인하게 죽였던 모습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돈키호테의 광적인 모습도 어쩌면 책이 출판될 당시의 인식의 틀을 깨는 행동들이라 괴이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책 속 돈키호테는 자신이 끼안나로 살던 현실에서 도피해 자신만의 소설 속 세상으로 들어가 로신안테, 돌시네아 등 새롭게 이름을 명명하며 이상적인 삶으로 넘어갔다. 돈키호테에게 있어 새로운 자신만의 인식의 틀이 구성되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이론에 따르면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러한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뒤이어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나는 ‘낮설’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낮선’ 모습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죄인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돈키호테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 속에서 돈키호테가=는 아무리 왕이라도 할지라도 함부로 죄수들을 벌을 주고 끌고 다닐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돈키호테의 말은 당연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이러한 글이 400여 년 전에 쓰였다는 것이 참신함을 더해주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돈키호테의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통해 이전까지 너무나 당연하다 여겨진 것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낮설게 느끼게끔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돈키호테의 이상한 행보와 행동들은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익살적인 면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너무나 당연시하여 전혀 지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아주 새롭고 낮선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그게 진정한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진정 완벽한 사실인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꽤 오래 전부터 인간들을 생각하게끔 하고 고민에 빠뜨리는 단골 소재이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21세기에서도 우리가 인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은 끝이 없다. 이러한 고민들의 결론으로 누군가는 회의론에 도달하고 또 누군가는 음모를 만들어 내는 데에 그치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처럼 돈키호테를 통한 낯설게 바라보기는 우리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해오던 질문을 다시 상기시키며 낯설게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 때문에 참신함과 흥미가 더해진 것이다.

돈키호테의 기이한 행보들을 보며 우리는 그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다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독특하고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나 싶은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

더불어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 따른다고 한다면 먼 훗날 혹은 가까운 미래엔 돈키호테의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수용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등장인물을 이용해 웃음, 흥미와 더불어 독자들의 시각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끔 한 것이다.

4. 돈키호테의 사랑 - 바르트의 '사랑을 사랑한다.'³

소설 돈키호테에서 굵직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라는 점은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 그만큼 돈키호테 속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두께만큼이나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 수만큼 다채로운 사랑의 모습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나는 돈키호테의 사랑에 관심을 두었는데, 아마 주인공이라는 점과 일반적인 등장인물들과는 비교적 독특함을 갖고 있어서 그러했다. 사실상 돈키호테의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무안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마을의 처녀를 혼자서 귀부인으로 생각하며 '돌시네아'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사랑한다 말하는 모습을 보고

³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희영, 동문선, (2004)

있노라면 어이없는 웃음이 지어질 정도이다. 물론 돈키호테에게 있어 사랑은 이미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욕망의 중계자인 아마디스를 모방하는 일의 일부일 것이다. 아마디스가 공을 세우거나 고난과 역경이 있거나 축하할만한 일이 있을 때 마땅히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추앙하거나 견디거나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단순히 돈키호테는 이러한 중계자의 모습을 모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돌시네아는 실존하는 여성이 아니라는 신포의 말에 돈키호테의 대답이 대단히 인상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돌시네아, 그녀가 진정으로 존재함의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돈키호테의 대답은 이전까지의 그녀의 이름을 마치 실제의 연인을 생각하듯 부르짖었던 모습과 꽤 모순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 모순적인 괴리감을 채워줄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20세기 중엽 프랑스의 평론가인 롤랑 바르트가 쓴 ‘사랑의 단상’의 내용 중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다. 사실 이 책은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문구로 더 유명한데, 제목과 문구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의 사랑에 대해 재치 있고 날카롭게 치부를 드러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돈키호테의 모순적인 사랑을 적절히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을 사랑한다.’ 이는 사람이 사랑을 함에 있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과정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춘과 같은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할 때 그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사랑이라는 것이며, 사랑하며 하는 일련의 과정과 경험들을 하고자 일종의 ‘사랑할’ 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을 만들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애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점에 맞추어 찾는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돈키호테의 이상한 사랑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전에 말했듯이 돈키호테는 자신이 끼안나 영감으로 살던 현실에서 소설 속과 같은 이상세계로 넘어가며 이름을 새로 부여하는 행동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격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이는 다시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정신상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소리인데, 자신의 이미 늙어버린 몸과는 분리된 채

마치 마음만은 아직도 이팔청춘이야 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어찌 되었든 새 젊음을 얻게 된 돈키호테는 자신의 젊음의 에너지가 도달할 종착역이 필요했고 그 종착역은 모두가 알다시피 사랑이었다. 돈키호테 또한 바르트의 책 속 내용처럼 사랑이라는 에너지의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 그럴싸한 대상인 돌시네아를 세우고 자신의 새로운 젊음의 에너지를 맘껏 발산하고 있던 것이다.

고로 돈키호테에게 있어 돌시네아에 대한 부정은 단지 한 명의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의 사랑 전체를 통째로 거부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나의 처부를 들킨 것 마냥 부끄러웠는데, 나 자신의 사랑하는 모습을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은 동성이 아닌 이성과 놀이공원을 가고 이성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하고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바랬으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말로는 상대방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혹은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서 라는 말로 겉포장을 하며 했던 일련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포장하고 착각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마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러한 점을 지적한 거 같다. 위에서 말했던 ‘낮설게 하기’의 일종으로 당신네의 사랑이 과연 객관적인 사랑인지, 진정으로 그 상대방이 좋아서 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랑하면 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원한 건지 생각해봐라 라는 뼈가 담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5. 돈키호테 내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소설 돈키호테의 에피소드들의 나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운데 큰 흐름이 있고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작가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의 병렬을 통해서 결국 무얼 말하고자 했는가 에 대한 궁금증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나는 작가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작품 돈키호테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때론 적나라하게 때론 의아하면서도 공감을 사게끔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문과 무에 대한 담론을 펼치는 모습에선 마치 요즘 이공계와 인문계 사이에서 우위를 나누는 모습과 유사하게 보였다. 이처럼 400여 년 전의 문학작품의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현재에 와서도 단지 자세한 부분들이 몇 군데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살 수 있었다. 또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단순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해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서양작품의 성격과 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서양 사람들의 인식관 역시 담고 있었다. 우선 서양 작품은 ‘비장미’가 두드러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매번 등장인물들이 바라던 정신적인 가치들은 결국 좌절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유명한 서양 작품들을 통해 체득했다. 대표적인 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러하다. 또한, 우리의 돈 끼호테 내용 역시 그런 비장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황금시대의 도래를 이끌 방랑기사가 되고자 했던 돈 끼호테도 처음 그 기세가 무색하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했고 포로의 이야기에서의 포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나 그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났으며 가장 근대적이고 주체적인 면모를 보였던 마르셀라 역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면 살수록 주변인들이 비극에 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돈 끼호테는 서양작품의 비극성을 다양한 이야기로서 비극적인 결말이라 할지라도 같으면서도 다른 비극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온 그리고 읽어온 돈 끼호테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하면 그 비극성보단 익살적인 면모가 더욱 부각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래도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인 돈 끼호테의 행적 때문일 것이다. 결국, 세르반테스 작가는 자신의 작품 돈 끼호테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원한 것 같았다. 그러는 와중 서양작품이라는 틀 안에서 비장미와 그에 못지않은 골계미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동양과 달리 서양은 ‘종말의 날’과 같은 비관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작품 속에 비장미로 반영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본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며 무비판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듯 우리네의 모습들을 재치 있게 꼬집으며 이러한 생각과 느낌들이 일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들을 주인공의 익살스러운 면모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수 백 년간 독자들의 공감을 사고 사랑을 얻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작품의 인기와 명성으로 이어진 것 같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총 4가지의 이유로 '돈키호테'가 왜 베스트 셀러가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돈키호테의 욕망을 통해 우리의 사실적이고도 솔직한 욕망을 직시 할 수 있게 하였고, 돈키호테의 광기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보던 사실들을 다른 틀에서, 돈키호테의 눈을 통해 낯설게 바라보게 하였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돈키호테 속의 다양한 사랑 이야기에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과연 실제의 대상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였고 마지막으로 알아본 돈키호테 속 병렬적인 이야기들을 보며 작가가 작품을 통해 독자들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보며 돈키호테가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은 '낯설 속의 공감'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돈키호테의 행동과 행보들은 독자들을 낯설게 하는 데 충분하였고 이는 독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새로움과 낯설을 통해 흥미를 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공감의 부분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미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으나 차마 부끄러워서 혹은 인정하길 원치 않아서 덮어두고 뒷걸음으로 밀어낸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을 꺼내어 인정하게끔 만든 점 또한 느꼈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내용이 돈키호테가 출간된 그 먼 과거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